

대명사 ‘나’와 ‘너’의 사회 인지적 표상 차이*

이 재 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인칭 대명사 ‘나-너’의 접화가 정서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개의 실험으로 접근하였다. 실험 1은 인칭 대명사를 SOA 300ms에서 접화하여 정서 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을 측정하였다.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으며, 긍정 단어는 나-접화가 너-접화보다 빨랐지만 부정 단어는 두 접화의 차이가 없었다. 실험 2는 SOA 300ms에서 두 변인의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칭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긍정 단어는 나-접화가 너-접화보다 명명시간이 빨랐으며 부정 단어는 너-접화가 나-접화보다 명명시간이 빨랐다. 두 실험은 ‘나’와 ‘너’가 사회인지적으로 대비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인칭 대명사의 대비적 접화효과를 사회인지이론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칭 대명사, 접화효과, 사회 인지, 정서적 평가

* 이 논문의 사회와 문화 심리학의 지식과 담론을 담아주신 故 최상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교신저자 : 이재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E-mail: leejaeho@kmu.ac.kr

사회 정보의 범주적 표상은 사회 인지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사회 범주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상하게 한다(Kunda, 2000; Musch & Klauer, 2003). 그러한 사회적 표상에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개념적 정보에 더하여 평가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Bargh, et al., 1992; Fazio, et al., 1996; Macrae, & Bodenhausen, 2000).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을 타인보다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개인이 포함된 내집단은 외집단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알려졌다. Perdue, Dovidio, Gurtman 및 Tyler(1990)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범주적 평가 표상이 언어의 사용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무의식적이라고 주장하였다(Blair & Banaji, 1996; Fazio & Olson, 2003;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이는 언어적 의미가 사회적 정보 처리에도 작용한다는 증거이다(예; Banaji & Hardin, 1996).

그리고 Perdue 등(1990)은 사회적 표상이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표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내집단과 외집단의 대비적 표상이 복수 대명사 우리('we')와 그들('they')에는 대응되지만 그 이외의 단수 대명사(예; 'I', 'you', 'he/she')는 집단간 대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서 Greenwald 등(2002)은 내외집단의 평가적 범주는 자신(self)이 중심적이며 자신과 집단의 평가적 일치성이 함께 작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만약 자신은 'I' 혹은 'me'를 지칭하고 타인은 'you'나 'he/she'를 지칭한다면 단수 대명사도 복수 대명사 같은 인칭에 따른 대비적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대비적 표상이

내외집단의 평가적 표상에 대응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지만 두 연구 모두 이인칭('you') 대명사의 표상은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사회적 상황에서 '나'와 '너'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 범주이지만 실제 두 범주의 평가적 표상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는 단수 대명사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일인칭 대명사와 상대방을 지칭하는 이인칭 대명사의 평가적 대비 표상을 밝히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인칭 대명사의 사회인지적 표상

사회 인지의 표상은 개념적 수준의 심적 표상이지만 그 표현은 모두 언어이다(예; Perdue, et al., 1990). 예를 들어 '자신-타인'이나 '내집단-외집단'은 일반 명사를 사용한 표현이다. 언어 표현과 심적 표상의 참조적 관계는 의미가 매개적인 역할을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언어 의미가 없는 단어도 참조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Banaji & Hardin, 1996; Housley, et al., 2010; Perdue, et al., 1990). 대표적인 기능어가 대용어 혹은 대명사이다(Perdue, et al., 1990). 대명사는 인칭, 성별, 수 등의 통사적 단서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지만 이들 대명사가 사회 인지의 과정을 유발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Banaji와 Hardin(1996)은 대명사도 일반 명사처럼 사회적 범주의 평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성별 속성을 지닌 일반 명사의 전형적 성별 의미(예; '의사=남성')가 대명사의 일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Perdue 등(1990)은 인칭 대명사가 무의미 철자의 선호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관찰하였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먼저 무의

미 철자(예; 'xeh')를 특정 인칭 대명사(예; 'we' 혹은 'they')에 조건화 시키고, 그 다음 각 무의미 철자에 대한 선호도 판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대명사(예; 'us')가 외집단 대명사(예; 'them')에 비해서 선호도 점수가 높게 관찰되었다. 연속된 실험에서 집단 대명사를 점화하여 평가 단어(예; 성격 형용사)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 평가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단어가 외집단 단어보다 긍정 단어의 판단이 빠르고 부정 단어는 차이가 없었다. 즉 집단 단어와 평가 단어의 상호작용이 관찰된 것이다. 이는 대명사의 언어적 단서가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다.

집단 대명사의 평가적 표상에 작용하는 영향에 대하여 Perdue 등(1990)은 집단 대명사와 개인 대명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즉 대명사의 사회 인지적 효과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은 독립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명사는 집단 대명사에 비해서 그러한 대비적 표상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단지 그들도 이 대명사가 자신을 지칭할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신은 집단의 구성원이기에 '나' 점화가 '집단'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Perdue 등(1990)은 일인칭과 이인칭의 단수 대명사들에 대한 유형별 선호도 평가치를 사후 분석하였고,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도 정서적 평가의 편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me'와 'mine'은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평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고, 'you'도 'me'와 비슷한 정도의 긍정적 평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일인칭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us'와 'ours')의 선호도 점수를 비교하였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제

시하지 않았다.

Perdue 등(1990)의 단수 대명사에 대한 사후 분석의 결과는 단수 대명사 자체의 특성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 단수 대명사는 복수 대명사에 비해서 실험 통제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단수 대명사를 복수의 집단 대명사의 통제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집단 대명사는 일인칭과 삼인칭 대명사의 대응 무의미 철자를 각각 세 개로 제한하였지만 단수 대명사(예; 'me', 'you', 'mine', 'yours', 'he', 'she')는 8개의 무의미 단어에 무선적으로 조건화시켰다. 즉 집단 대명사는 특정 무의미 철자와 체계적인 조건화가 가능한 조작이지만 단수 대명사는 특정 무의미 철자와의 조건화 조작은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복수 대명사는 점화과제를 적용한 실험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단수 대명사에 대한 점화 실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Perdue 등(1990)의 연구는 연구 방법에 더하여 이론의 측면에서도 다른 주장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Greenwald 등(2002)은 자신(self)이 사회 범주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현출적인 표상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평가적 표상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신-집단'의 일치적 표상을 밝히기 위해서 암묵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적용하였다. 이 과제는 사회적 범주에 단어를 할당하는 절차이며 암묵적 인지에 민감성이 높은 과제이다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일반적으로 이 과제를 적용하면 자신('self')이 타인('other')에 비해서 암묵연합검사의 평가 일치성 점수가 높다. 그들의 주장을 대명사에 적용하면, 개인을 지칭하는 '나('I' 혹은 'me')'는 '자신'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명사 '나'는 '자신'을

활성화시키는 단서가 되며 그 결과, 긍정적 평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와 ‘너’의 차이

Perdue 등(1990)과 Greenwald 등(2002)은 각각 ‘나’와 ‘자신’의 표상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인칭인 ‘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사회 범주는 자타나 내외처럼 이분적 범주로 분류되지만 대명사의 인칭은 세 범주이다. 인칭 대명사는 일인칭과 삼인칭에 더하여 이인칭이 있다. 이인칭 대명사 ‘너’는 일상 언어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만약 개인 수준의 자신이 타인과 범주적으로 표상을 달리 한다면 이인칭의 표상은 일인칭과 삼인칭의 범주 표상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인칭 대명사인 ‘너’는 사회적 범주에서 어떤 범주에 속하며 어떤 평가적 표상을 형성하는 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화심리학적 맥락에서 최상진과 김기범(1999)은 ‘자신’에 대한 표상에서 ‘나’와 ‘너’의 대비적 관계를 논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데, 혹은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등의 표현을 보면 ‘너’와 ‘나’는 ‘우리’라는 테두리 속에서 함께하는 구성원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국어학적 맥락에서 김정남(2003)은 단수인 ‘나’와 복수인 ‘우리’는 인칭의 수를 넘어서 같은 표현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영어의 ‘my house’와 ‘our house’는 의미가 다르지만 국어의 ‘나의 집’이나 ‘우리 집’은 의미가 혼용되며, 심지어 ‘나의 마누라’ 대신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사용하고 있다.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도 대명사의 사용이 인칭에 국한되기보다는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예; 이재

호, 2009). 사회 범주에서 복수와 단수 대명사가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의 평가적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인칭의 차이 또한 범주적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평가적 표상이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자신-타인의 범주 구분에서는 일인칭인 ‘나’와 이인칭인 ‘너’는 서로 다른 범주의 구성원이다. 반면에 내집단-외집단의 범주 구분에서는 ‘너’가 어느 범주인지 그 경계가 불명확하다.

정서적 평가의 촉진과 억제 과정

인칭 대명사의 사회 인지의 표상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정서적 평가의 과정에 작용하는 처리 기제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Fazio & Olson, 2003). 인칭 대명사가 사회 인지의 범주적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범주의 평가적 표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Perdue 등(1990)에서 사용된 점화과제(priming task)는 반응시간이 주요 측정치이다. 이 반응시간은 점화-목표 자극의 의미나 참조 관계의 처리 과정을 반영한다. 점화와 목표의 의미적 관계 혹은 강도가 높으면 점화 자극의 제시에 의한 목표 자극의 반응이 촉진된다고 가정하지만(예; Collins & Loftus, 1975; Neely, 1977; 1991), 두 자극의 의미 관계가 항상 자극의 반응을 촉진시키지는 않는다. 두 자극의 의미의 일치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예; 이재호와 이정모, 2000), 두 자극이 너무 대비적이면 오히려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예; Glaser & Banaji, 1999; Stapel & Koomen, 1998; Stapel, & Winkielman, 1998).

Blanton과 Stapel(2008)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도 동화와 대비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동화는 두 대상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대비는 서로 다른 대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신이나 내집단은 공통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애초값(default value)이다. 만약 자신이나 내집단의 점화에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면 이 평가와 자신이나 내집단은 동화보다는 대비 현상이 발생한다(예; Blanton & Stapel, 2008; Lee & Lee, 2005). 대비(contrast)는 추가적인 인지적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처리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느려진다(예; Stapel & Koomen, 1998). '자신-긍정' 표상에 '자신-부정' 정보가 입력되면 두 정보는 서로 대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상위 수준으로 통합하거나 대비 정보에 대한 처리의 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Lee & Lee, 2005). 이런 이유로 자신이나 내집단의 부정 정서는 긍정 정서보다 반응이 느려지게 될 것이다.

이는 Perdue 등(1990)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긍정 평가는 내집단 점화(예; 'we')가 외집단 점화(예; 'they')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이는 내집단 평가의 긍정성에 의한 동화적 촉진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내집단 부정 평가는 외집단 점화가 내집단 점화보다 반응시간이 빠른 경향이 있었다. 특히 Perdue 등(1990)은 실험 3에서 대명사 점화 조건과 통제 점화 조건(예; '****')을 비교하였다. 만약 부정 평가의 외집단 촉진 효과이면 외집단 대명사가 통제 조건에 비해서도 반응시간이 빨라야 한다. 그러나 외집단 점화는 통제 조건과 차이가 없었다. 단지 두 조건에 비해서 내집단 대명사의 반응시간이 느렸을 뿐이었다. 이는 내집단의 긍정 평가는 외집단의 긍정 평가에 비해서 반응이 촉진되며 외집단의 부정 평가는 내집단의 부정

평가에 비해서 촉진되기 보다는 오히려 내집단의 부정 평가가 억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내외집단의 반응시간의 차이는 집단의 의미적 점화효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집단 점화에 의한 긍정과 부정 평가의 반응은 그 기제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긍정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긍정이면 자신-집단의 응집적 표상이 형성된다. 이 표상에 긍정 정보가 입력되면 동화적 촉진 현상이 발생하며, 부정 정보가 입력되면 대비적 억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예; Blanton & Stapel, 2008; Neely, 1977; 1991). 그리고 이들 과정은 병렬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Blanton과 Stapel (2008)은 동화는 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수행되지만 대비는 인지적 자원이 요구되는 통제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Neely(1991) 또한 활성화 촉진은 자동적이고 암묵적으로 수행되지만 억제는 전략적이고 의식적으로 수행된다고 하였다.

연구문제

Perdue 등(1990)은 집단 대명사의 점화효과를 통하여 언어적 단서가 집단 표상의 평가적 과정에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 인지의 표상이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이 있으며 각각은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Greenwald 등(2002)은 사회 범주는 '자신-집단-속성'의 균형-일치성에 의해서 표상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집단'은 서로 독립적인 표상을 형성하기보다는 평가적으로 응집적 표상을 형성할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두 연구의 차이는 다음의 가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집단우위가설**: Perdue 등(1990)은 집단 수준의 내집단 대명사와 외집단 대명사의 대비적 표상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단수 대명사는 집단의 복수 대명사에 비해서 그 대비 효과가 약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는 집단 중립적이기에 ‘나-너’ 대명사의 정서적 평가는 긍정-부정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을 예측한다(예; Perdue, et al., 1990). 그렇지만 Perdue 등(1990)은 두 인칭 대명사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집단의 복수 대명사에 대하여 점화패러다임을 적용하였지만 목표 자극에 대한 정서판단과제를 실시하고 점화과제의 SOA도 500ms를 적용하였기에 처리전략의 의식적 처리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자신현출가설**: 이 가설은 자신이 집단의 평가에 우선하여 표상의 중심이 된다고 가정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나-너’는 범주적 혹은 현출성에 따른 차별적 표상을 형성할 것이다(예; Greenwald, et al., 1995; 2002). 그리고 자신-집단의 표상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나’는 ‘너’보다 현출적이기 때문에 두 대명사와 평가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나’의 점화는 ‘너’의 점화에 비해서 긍정 평가에서는 반응이 촉진되며 부정 평가에서는 반응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참가자와 과제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암묵연합검사는 점화과제에 비해서 자극 제시의 통제나 점화-목표 자극의 단계적인 평가적 과정을 시간경과적으로 체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다(예; 이재호와 방희정, 2003).

이 연구는 점화과제를 적용하여 ‘나-너’의 평가적 표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정

서적 애초값이 긍정이라면 자신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한 경우 목표 자극의 정서가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 효과가 예측된다. 자신-긍정과 정서-긍정은 정서가에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지만, 자신-긍정과 정서-부정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다. 즉 점화-목표의 유사성은 서로 동화적 처리를 유발하지만 차별성은 대비적 처리를 유발한다. 그래서 자신 점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 자극의 점화효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긍정 자극이 부정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잇점이 예측된다. 반면에 타인인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정서가에 따라 동화/대비의 처리가 다를 수 있다. 만약 타인-부정이 애초값이면, 타인-부정 점화에 정서-부정일 때 부정-부정의 유사성이 동화적 처리를 유발하며, 정서-긍정이면 대비적 처리가 유발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애초값이 덜 긍정이면 덜 긍정이나 부정의 경우에도 동화나 대비를 예견할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자신의 정서가 효과에 비해서는 미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정서가 수준에 따라 목표 자극의 정서가는 긍정-부정의 차이가 없거나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부정-긍정의 차이가 약하게 관찰될 수 있다.

사회 인지의 범주적 표상이 암묵적이고 그 처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면 대명사와 정서가의 상호작용 역시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과정임을 가정하게 한다. 점화 패러다임에서는 과제의 절차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즉 두 과정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극 제시의 시간이나 과제의 반응 전략을 조작해야 한다. 첫째 자동과 통제 혹은 외현과 암묵의 처리에 민감한 자극의 제시시간은 SOA(stimulus onset asynchrony) 400-500ms 이다(Banaji & Hardin, 1996; Neely, 1977; 1991).

둘째 반응전략의 조작이다. Perdue 등(1990)의 정서판단과제에 비해서 어휘판단과제나 명명과제는 정서에 대한 의식적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실험 1에서는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적용하였으며,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처리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SOA를 300ms로 조작하였다. 실험 2에서는 과제의 수렴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SOA 300ms에서 명명과제(naming task)를 적용하였다. 이 과제는 단어 자체의 의미나 발성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응의 전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예; 이재호와 김성일, 1998). 이 연구는 두 실험의 과제가 의식적 과정의 개입 여부에 따라 과정의 민감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제의 수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실험 1. 어휘판단과제

Perdue 등(1990)은 인칭 대명사의 정서적 점화효과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지만 단수 대명사는 모두 집단 중성 대명사로 범주화하였다. 일인칭 단수 대명사가 자신(self)을 점화할 가능성을 고전적 조건형성 패러다임의 자료를 적용하여 논의하였지만 그 결과도 분명하지 않았다. 단수 대명사는 복수 대명사에 비해서 인칭에 따른 조건화 조작이 문제가 있었다. 즉 복수 대명사는 특정 무의미 철자에 체계적으로 조건화되었지만 단수 대명사는 인칭에 따른 체계적 조작이 없었다. 자신 즉 일인칭 단수 대명사는 자신을 점화한다는 증거가 Greenwald 등(2002)의 암묵연합과제에서 보였다. 즉 자신-타인의 범주에서 ((자신-긍정)과 (타인-부정))의 일치조건이 ((자신-부정)과 (타인

-긍정))의 불일치조건보다 범주화 시간이 빨랐다. 즉 자신과 평가적으로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의 IAT 점수가 유의미하게 관찰된 것이다.

Perdue 등(1990)의 집단우위가설에 따르면 복수 대명사가 집단 범주를 차별적으로 점화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단수 대명사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에 Greenwald 등(2002)은 자신과 타인의 차별적 범주 표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두 연구에서 이인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만약 일인칭과 이인칭의 평가적 표상이 동일하다면 집단우위가설에서 예견하듯이 두 인칭이 집단의 우리에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 반면에 두 인칭의 평가적 표상 차이가 관찰된다면 이는 내외집단의 평가적 대비와 개인 수준의 대비가 병렬적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며, 자신현출가설에서 예견하듯이 개인-집단이 자신-내집단이라는 긍정 표상으로 응집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실험 1은 일인칭과 이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와 '너'를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정서 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을 SOA 300ms에서 측정하였다. SOA 300ms는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처리에 민감한 실험 조건이다(Neely, 1977; 1991; 이재호와 김성일, 1998). 집단우위가설에 따르면 '나'의 점화와 '너'의 점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단어에 대한 반응 양상이 같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인칭 대명사가 긍정과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에 차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Perdue, et al., 1990). 반면에 자신현출가설에 따르면 '나-너'는 각각 자신과 타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어휘판단시간이 빠른 주효과가 관찰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 비해서 현출적이기 때문에

‘나’의 점화가 ‘너’의 점화에 비해서 긍정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이 빠를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부정단어는 그 방향이 역전될 수 있다. 그 결과 대명사 유형과 정서단어의 상호작용이 예측된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9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심리학 전공을 수강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험 점수를 부여하였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 단어(‘긍정단어’, ‘부정단어’)이었다.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1은 (2×2) 피험자내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점화패러다임은 점화단어의 제시로 인한 목표단어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점화 조건에 사용된 단어는 ‘나’ 혹은 ‘너’였다. ‘나’ 혹은 ‘너’를 점화단어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첨부한 재료를 만들었다. ‘나’와 ‘너’는 각각 10개씩의 단어에 조사가 붙은 어절로 구성되었다. 이들 단어는 점화단어로 사용하였다. 목표 조건의 정서 단어는 긍정 단어 10개와 부정 단어 10개가 사용되었다. 이

들 단어는 오경기 등(2002)의 연구에서 선별되었으며, 이들 단어는 인칭 대명사의 점화단어에 대응하는 목표단어이었다. 점화와 목표 단어쌍은 무선적으로 짝지워졌다.

실험절차

실험은 4명씩 집단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750ms 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00ms동안 제시되고 나면 20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 자극 제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다.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그 목표단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과제를 숙지시키기 위해서 6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한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 시행과 동일하였다. 실험조건의 단어쌍은 의미 단어 20쌍과 비단어 20쌍을 구성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펜티엄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Direct RT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의 8.8%였다.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목표단어의 반응 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반응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정서 단어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58)=48.42$, $MSe=4423.16$, $p=.000$). 긍정단어(556ms)가 부정단어(616ms)에 비해서 60ms가 빨랐다. 그리고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58)=4.30$, $MSe=3490.61$, $p=.042$).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긍정단어는 '나' 점화조건이 '너' 점화조건에 비해서 22ms 빨랐으며($F(58)=2.28$, $p=.026$), 부정단어는 '나' 점화조건과 '너' 점화조건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실험 1은 '나'와 '너'의 점화가 평가적 단어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이는 집단우위가설이나 자신현출가설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그 상호작용은 긍정단어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긍정 단어 점화효과가 '너'의 긍정 단어 점화효과보다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집단우세가설보다 자신현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Greenwald 등(2002)의 일치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현출적인 표상을 형성하며 정서적으로 긍정적 표상을 애초값으로 형성한다는 주장에 일치한다(예; Greenwald, et al., 2002). 즉 자신을 타인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겠다. 반면에 부정단어는 '나-너'의 차이가 없었다. 단지 '너'가 '나'보다 빠른 경향만 보였으며 Perdue 등(1990)의 실험 3의 'we-they' 점화 양상과 매우 일치한다. 이는 자신현출가설에 일치하는 결과는 아니다. 즉 '나'와 '너'가 자신-타인의 표상에 대응된다면 '너'가 '나'보다 부정단어의 반응시간이 빨라야 한다. 인칭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상호작용은 분명히 '나-너'의 정서적 평가 표상이 다르다는 증거이다. 실험 1은 어휘판단과제이다. 이 과제는 Perdue 등(1990)이 사용한 정서판단과제보다는 정서적 편향의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어휘판단과제도 단어에 대한 의미적 범주에 기반한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응 전략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Neely, 1977; 이재호와 김성일, 1998). 이러한 반응 편향이 긍정과 부정 단어에 차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었지만 부정 정서에는 과제의 민감성이 적었다고 보겠다.

표 1. SOA 300ms에서 인칭대명사와 정서단어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의 평균(ms)

점화 조건	정서 단어	정서 단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나	545 (14)	621 (16)
대명사	너	567 (16)	612 (18)

()안은 표준오차

실험 2. 명명과제

실험 1은 '나'와 '너'가 정서적 평가에 대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비록 자신현출가설에서 주장하였듯이 대명사와 정서가의 완전한 대칭적 상호작용은 아니

있지만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단수 대명사의 인칭 범주에 평가적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단지 어휘판단과제의 특성이 반응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어휘판단은 단어의 의미에 기반하여 단어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에 비해서 의미적 영향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예; 이재호와 김성일, 1998). 더욱이 이 과제는 목표자극의 역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어의 판단에 의식적 전략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예; Neely, 1977; 1991).

실험 1의 결과만으로도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의 대비적 표상은 일인칭과 삼인칭 복수 대명사의 대비적 표상과 다르지 않다고 보겠다. 그렇지만 어휘판단과제가 지니는 특성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점화과제에 따른 수렴적 결과를 관찰할 필요가 제기된다. Schilling 등(1998)은 단어의 빈도효과를 어휘판단과제와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직접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높은 빈도와 낮은 빈도의 반응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점화효과의 크기가 어휘판단과제가 명명과제보다 크게 관찰되었으며, 반응의 억제도 전자에서 크게 관찰되었다. 유사하게 이재호와 이정모(2000)는 범주 점화에 따른 전형과 비전형 단어의 점화효과 크기도 두 과제에서 다르게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즉 어휘판단과제보다 명명과제가 변인의 민감성에 보수적이었다(Bargh, et al., 1996; Spruyt, et al., 2004). 실험 2는 반응전략과 변인의 효과에 엄격한 과제로 알려진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실험 1의 결과를 재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49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심리학 전공을 수강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험 점수를 부여하였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과 정서 단어('긍정단어', '부정단어')이었다. 두 변인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여, (2×2) 피험자내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 1과 동일하였지만 '아니오' 반응을 위한 통제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0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20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300ms). 자극 제시의 통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

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성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었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6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한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60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펜티엄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Direct RT를 사용하였으며, Windows XP상에서 수행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명명과제에서 단어를 잘못 발성한 반응은 없었다. 명명시간이 200ms보다 짧거나 표준편차 3인 8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1.4%였다.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목표단어의 반응시간 평균이 표 2에 제시되었다. '나'와 '너' 인칭 대명사($F(1,48)=4.59$, $MSe=758.07$,

표 2. SOA 300ms에서 인칭대명사와 정서단어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점화 조건	정서 단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나	530 (10) 561 (11)
대명사	너	542 (9) 533 (9)

()안은 표준오차

$p=.037$)와 긍정-부정 정서($F(1,48) =7.13$, $MSe=789.84$, $p=.01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49)=24.69$, $MSe=822.19$, $p=.000$). 단순주효과 분석에서 긍정단어에서 '나' 점화조건(530ms)은 '너' 점화조건(542ms)보다 12ms 빨랐고($t(48)=2.39$, $p=.021$), 부정단어에서 '나' 점화조건(561ms)은 '너' 점화조건(533ms)에 비해서 28ms 느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8)=4.56$, $p=.000$).

실험 2의 명명과제는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에서 얻어진 상호작용효과를 반복하였지만 그 패턴은 매우 달랐다. 실험 1의 상호작용효과에 비해서 실험 2의 상호작용은 점화와 목표 조건의 상호작용이 보다 대칭적이었다. 즉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빠르게 하였으며, 반면에 '너'는 '나'에 비해서 부정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을 빠르게 하였다. 실험 2의 명명과제는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인칭 대명사의 대비적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명명과제는 일인칭과 이인칭 단수 대명사도 일인칭과 삼인칭 복수 대명사처럼 범주에 따른 평가적 대비 현상이 있다는 증거를 보인 것이다. 이는 Perdue 등(1990)의 연구 결과를 반복하고 확장하였고, 분명히 집단우위시설보다는 자신현출

가설에 일치하는 결과이다(Greenwald, et al., 2002; Perdue, et al., 1990).

종합 논의

이 연구는 인칭 대명사인 ‘나’와 ‘너’를 각각 점화하여 긍정과 부정의 정서 단어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과제 수렴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 인지의 정체성 이론이나 범주화 이론은 모두 내집단에 근거하여 외집단을 대비적으로 평가하는 상반된 범주 표상을 가정하였다(Kunda, 2000). Perdue 등(1990)은 개인의 인칭 대명사는 집단 대명사에 비해서 정서적 평가의 기능이 미약하며,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는 중성 집단 대명사 이기에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지만 Greenwald 등(2002)은 자신이 사회 인지의 초점이며 ‘자신-집단’의 정서적 일치성이 사회 인지의 지각, 태도 등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만약 일인칭 대명사인 ‘나’가 ‘자신’을 참조한다면 ‘자신’은 ‘내집단’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너’는 ‘자신’보다 ‘타인’을 점화하게 되며 ‘외집단’으로 표상된다. 두 연구는 서로 다른 이론적 가정을 하였고 사용된 과제도 다르다는 차이가 있었다.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는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의 상호작용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였다. ‘나’는 ‘너’보다 긍정단어의 반응시간이 빨랐고, 반면에 부정단어는 ‘너’가 ‘나’보다 반응시간이 빠른 경향을 보였다. 두 대명사와 정서단어의 반응 패턴은 Perdue 등(1991)의 복수 대명사 ‘we-they’의 반응 패턴과 유사하였다. 실험 2의 명명과제는 실험 1의 과제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긍정 단어

는 ‘나’가 ‘너’보다 반응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는 ‘너’가 ‘나’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두 실험의 결과는 Perdue 등(1990)의 집단 대명사인 ‘우리(we)’-‘그들(they)’의 집단과 정서 평가의 상호작용을 개인 대명사 ‘나(I)’-‘너(you)’에서 반복 관찰하였으며, 자신현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Greenwald 등(2002)의 일치성 이론을 점화과제에서 재확인한 성과도 있다.

사회 인지의 표상에 대한 연구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의 하나가 과제 간의 수렴성이다(예; De Houwer, Hermans, D., Spruyt, 2001). 과제는 심적 처리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 점화과제나 암묵연합과제 모두 자동과 암묵 처리에 민감하다고 알려졌지만 그 절차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점화-목표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는 범주할당 패러다임이며 후자인 점화과제는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패러다임이다. 암묵연합검사에서는 (일치: (나-긍정)+(너-부정))과 (불일치: (나-부정)+(너-긍정))의 반응시간을 계산하여 IAT 점수를 산출하지만(예; Greenwald, et al., 2002; 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점화과제는 각 항목에 대한 반응시간을 비교한다. 이 연구는 두 과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점화과제의 반응시간을 IAT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1에서는 일치 조건(578ms)의 반응시간이 불일치 조건(594ms)의 반응시간보다 16ms 짧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고($t(58)=2.07, p=.042$), 실험 2에서는 일치 조건(531ms)이 불일치 조건(552ms)보다 20ms 빨랐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8)=4.96, p=.000$). 이 연구의 점화과제의 반응시간은 과제의 절차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암묵연합과제의 반응시간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였다.

'나'의 긍정적 응집성과 '너'의 대비적 표상

이 연구는 '나'와 '너'의 대비적 표현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두 개인을 지칭하는 대명사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사회 인지의 대표적인 표상이 자신-타인 혹은 내집단-내집단의 이원적 범주이었다. 그러면 '나-너' 또한 사회적 범주인데 둘 간의 표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Perdue 등(1990)은 언어의 대명사가 내외집단의 평가적 표상에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코자 하였다. 전통 사회이론에 따라 내집단의 긍정-부정의 차이와 외집단의 긍정-부정 차이를 비교하였다. 내집단('we')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외집단('they')은 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가적 표상이 대칭적이지 않고 평가적 표상의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두 실험의 결과를 보면, '나'와 '너'의 긍정과 부정 단어에 대한 점화효과는 대칭적 상호작용은 아니다. 긍정-부정의 차이는 실험 1의 '나'는 76ms, '너'는 44ms, 실험 2의 '나'는 31ms, '너'는 9ms 이었다. 두 과제는 모두 '나'가 '너'보다 더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선행 Perdue 등(1990)의 집단 연구를 이 연구의 개인 수준에 비교하면 'we-they' 표상보다는 'I-you' 표상이 역동적일 가능성이 있다. 집단 수준의 'they'는 긍정-부정의 차이가 통제 조건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었지만 이 연구의 '너'는 실험 1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빨랐으며, 실험 2에서는 오히려 역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나와 너'의 평가적 표상이 과제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Neely(1977)에 따르면 '나' 점화에서 긍정-부정 단어의 반응 차이는 '나-긍정'의 촉진과 '나-부정'의 대비 혹은 억제로 설명될 수 있다. '나' 부정의 반응은 '너' 부정의 반응보다 느렸다. 촉진 기제로 설명하면 부정 자극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거나 처리 부담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은 긍정이 애초값이다(예; Greenwald, et al., 2002). 만약 자신-긍정의 표상 상태에서 부정 자극의 입력은 두 자극이 동화하기보다는 대비되는 것이며 따라서 처리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겠다. 이는 '너' 부정이 '나' 부정'보다 반응이 빠른 현상이 설명된다. '너'가 부정 애초값을 지니고 있다면 '너' 부정 자극은 동화적 처리가 가능하며 '나' 부정보다 '너' 부정의 처리가 촉진될 수 있다. 즉 덜 억제되기 때문인 것이다. '나-부정'은 애초값인 자신의 긍정성에 대비되는 정보이다. 두 정보의 처리는 촉진되기보다는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Martindale & Moore, 1988; Lee & Lee, 2005). '나-긍정'의 촉진과 '나-부정'의 억제는 '자신-긍정성' 표상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너'는 '나'보다 긍정은 느리고 부정은 빨랐다. 이는 '나'의 정서 표상에 비해서 '너'의 정서 표상은 긍정의 촉진과 부정의 억제가 모두 약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또한 '나'는 '너'보다 내집단적 특성이 강하며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현출적이기 때문이다(예; Glaser & Banaji, 1999; Greenwald et al., 2002). 자신의 긍정적 현출성이 자신과 타인의 평가적 표상에 기반이 된다고 보겠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평가적 표상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단수 대명사는 Perdue 등(1990)의 복수 대명사의 상호작용 패턴을 반복하였다. 이는 단수와 복

수의 대명사가 병렬적으로 대등한 표상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단수 대명사에도 ‘그’의 삼인칭 대명사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너’와 ‘그’의 표상이 ‘나-너’ 표상에 대응된다면 ‘나-너-그’가 단계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이 있고, 둘 간의 차이가 없다면 ‘나’는 자신을 지칭하며 ‘너-그’는 타인을 지칭하는 이원적 범주 체계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집단 수준의 표상과 자신과 타인의 표상이 수직과 수평 차원에서 그 표상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사회 인지의 연구에 기반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는 관계적 혹은 집단적 문화로 규정되어 왔다(예; 최상진과 김기범, 1999). 그러나 최근의 급변하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교류는 우리의 사회 인지의 표상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문화가 과거의 문화적 표상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문화의 자기-타인-집단의 평가적 표상은 어떤 역동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연구는 적어도 개인의 의식화 수준에서 ‘너’는 ‘나’와는 분명히 다른 범주로 표상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개인 수준의 대명사와 집단 수준의 대명사의 언어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심적 표상에 작용하는 과정은 실제 사회 상황의 담화 맥락에서 보다 인지 생태적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의식의 수준에 따른 역동적인 표상의 변화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정남 (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257-274.

오경기, 김미라, 이재호, 조금호 (2002). 성별 특성 단어의 자동적 평가: 일치성 효과와 긍정성 우위 효과를 중심으로. *인지과학*, 13, 55-67.

이재호 (2009). 설명문의 대용어 참조해결과정: 지시사 유형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485-507.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75-292.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ly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 1142-1163.
- Blanton, H., & Stapel, D. A. (2008). Unconscious and spontaneous and ... complex: The three selves model of social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1018-1032.
- Collins, A. M., & Loftus, E.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6.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Housley, M. K., Claypool, H. M., Garcia-Marques, T., & Mackie, D. M. (2010). "We" are familiar but "It" is not: Ingroup pronouns trigger feelings of famili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114-119.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ee, J-M., & Lee, J-H. (2005). Contrast information processing in discourse comprehen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 69-92.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artindale, C., & Moore, K. (1988). Priming, prototypicality, and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4*, 661-670.
- Musch, J., & Klauer, K. C. (2003).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Hillsdale, NJ: Erlbaum.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6-254.
- Neely, J. H. (1991). Semantic priming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selective review of current findings and theories. In D. Besner & G. W. Humphrey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Visual word recognition* (pp. 264-336). Hillsdale, NJ: Erlbaum.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Schilling, H. E. H., Rayner, K., & Chumbley, J. I. (1998). Comparing naming, lexical decision, and eye fixation times: Word frequency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Memory & Cognition*, 26, 1270-1281.
- Spruyt, A., Hermans, D., De Houwer, J., & Eelen, P. (2004). Non-associative semantic priming: Episodic affective priming of naming responses. *Acta Psychologica*, 116, 39-54.
- Stapel, D. A., & Koomen, W. (1998). When stereotype activation results in (counter) stereotypical judgments: Priming stereotype-relevant traits and exempla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136-163.
- Stapel, D. A., & Winkielman, P. (1998). Assimilation and contrast as a function of context-target similarity, distinctness, and dimensional relev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34-646.
- 1 차원고접수 : 2011. 8. 26.
수정원고접수 : 2011. 12. 8.
최종게재결정 : 2012. 4. 24.

The Difference of Social Cognitive Representation for Personal Pronouns ‘I’ and ‘You’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of personal pronouns (e.g. ‘I’ and ‘you’) and emotional evaluation (e.g. positive and negative) using multi-task approaches (e.g. lexical decision task and primed naming task).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personal pronouns as primes at SOA 300ms and were asked to respond emotional words which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sonal pronouns and emotional words were significant.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personal pronouns as primes at SOA 300ms and were asked to pronounce emotional words which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also significa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dynamic processes of social cognition.

Key words : personal pronoun, priming effect, multi-task, social cognition, emotional evaluation

(부록 1)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

	점화단어		목표단어			
	나-점화	너-점화	긍정단어	정서평가	부정단어	정서평가
1	나	나	배려	1.2	독선	4.3
2	나는	나는	성실	1.6	허풍	4.6
3	나를	나를	사랑	1.3	잔인	4.9
4	나의	나의	애정	1.4	질투	3.8
5	나처럼	나처럼	건강	2.1	허약	3.1
6	나와	나와	부모	1.5	조폭	4.5
7	나만	나만	천사	1.6	악마	4.6
8	나도	나도	스승	1.8	간첩	4.2
9	나뿐	나뿐	나비	2.7	거미	3.1
10	나에게	나에게	간호	2.6	강도	4.6

* 실험 단어의 정서 평가는 대학원생 10명에게 5점척도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1점은 가장 긍정이며, 3점은 보통, 5점은 가장 부정이었다. 긍정단어는 평균이 1.7(.8)점이었고 부정단어는 평균 4.1(.1)이었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F(1,9)=164.29$, $MSe=1.73$, $p=.000$]